

수출, 7개월연속 500억弗 돌파 “세계6위 수출국 위상 공고화”

아세안 수출 ‘역대 최고’...성윤모 장관 “향후 대외 수출 여건 녹록지 않아”



11월 수출이 무역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초로 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올해 들어 여덟 번째 5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3위 기록을 달성했다. 더욱이 아세안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로써 올해 수출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6위 수출국의 위상을 공고화하고 있다. 다만 향후 대외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아 체질변화가 시급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어난 519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 7개월 연속 및 연간 여덟 번째 500억 달러 이상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3월 수출액은 513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4월에 498억6000만 달러로 500억 달러에 못 미쳤다.

이후 5월 수출액이 507억 달러, 6월 511억 달러, 7월 518억1000만 달러, 8월 511억8000만 달러, 9월 506억2000만 달러, 10월 549억4000만 달러에 이어 11월에도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초로 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아세안 지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0% 늘어난 94억1000만 달러

로, 해당지역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세안 수출 상위기록으로 2위는 2017년 9월(91억2000만 달러), 3위는 2018년 10월(88억1000만 달러), 4위는 2018년 3월(85억9000만 달러) 등이다.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한 467억8000만 달러, 무역수지 51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11월 누적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 늘어난 5572억 달러, 같은 기간 일평균 수출은 6.0% 증가한 22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석유제품·선박 등 6개 품목은 수출이 늘었고 증가한 품목 중 반도체·석유제품·선박 등 3개 품목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속적인 메모리 수요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세를 유지하며 106억8000만 달러를 기록, 7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초과해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반기계는 미국 설비투자 증가와 사회간접자본(SOC)투자·주책경기 호조세, 인도 정부 인프라 투자 증가 및 국내 완성차업체 인도 현지공장 설립 등의 영향으로 46억 7000만 달러로 9개월 연속 40억 달

러 이상을 수출했다. 석유화학 수출액은 40억3000만 달러로 12개월 연속 4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이는 수출 단가 상승 국내 기업의 신규설비 정상 가동에 따른 불량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제품은 세계 석유수요 증가 및 경질유 중심의 경제마진 호조에 따라 13개월 연속 30억 달러 수출을 돌파하며 26개월 연속 증가했다.

선박은 유럽연합(EU)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대형 운반선 통관 지난해 11월 선박 수출 기저효과 영향으로 9개월 만에 수출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역별로 ▲독립국가연합(CIS)(46.2%) ▲EU(23.7%) ▲아세안(13.0%) ▲인도(11.8%) ▲일본(9.4%) ▲미국(7.9%) ▲베트남(2.0%) 등의 수출은 늘었다. 하지만 ▲중국(-2.9%) ▲중남미(-12.2%) ▲중동(-30.0%) 등의 수출은 줄었다.

아세안지역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의 호조세 덕분에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은 자동차·일반기계·반도체 등의 호조세로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미국에서 액화석유가스(LPG)·천연가스·석유제품 등의 수입 증가로 1~11월 누적 무역흑자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EU는 대형 액화천연가스(LNG)선 인도에 따른 선박 수출 증가, 자동차 수출 호조세, 기계설비 수요 증대, 차부품 수요 증대에 따라 2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석유화학·철강제품 등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의 부진, 지난해 11월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 수출은 역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6위 수출국의 위상을 공고하게 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 향후 대외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우리 수출의 하방요인에 온 힘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한국은행,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경기 하강 국면...서민 부담 어찌나 “추후 대출 금리 인상 기폭제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로써 연말 내내 경제정책방향을 구상하는 작업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11월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6년5개월 만에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 1년 만의 추가 인상이다. 가계 빚이 1500조원을 육박한 데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차가 10년7개월 만에 역전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통화 당국을 고심하게 만들었던 경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먼저 못하게 됐다. 이차 부담이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움츠러든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내년까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같은날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 상황

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8.4로 지난 4월부터 7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5월(97.9) 이후 최저치다.

통계청은 통상 해당 지표가 전월 대비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할 때 경기가 상승에서 하강으로 꺾이는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잠정 판단한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7개월 연속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는 총 8차례였고 이중 5차례 경기 전환이 공식 선언됐었다.

미래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보다 0.4%p 하락한 98.8을 기록, 지난 6월부터 5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선행지수들의 선행성이 약화돼 두 지수 간 시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9개월 만에 생산, 소비, 투자 3대 지표가 모두 상승하며 호조를 나타냈지만,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어윤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건설기성을 제외한 지표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에 비해 개선

된 모습이지만 개선 강도와 속도가 경기 전환을 가져올 정도로 강하지 않다”며 “개선 흐름도 2개월 이상 지속돼야 상승’으로 볼 수 있으나 다음달에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지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75%의 기준금리는 당장 우리 경제 지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 과장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주지 않는 지표는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경기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력이 없을 것이라 보고 기준금리의 내년 추가 인상은 어려운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 금리가 이미 올라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왔던 상태여서 이번엔 인상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짚으며 “이번 인상이 추후 대출 금리 인상에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경기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 상승의 신호로 인식되면 대출 금리가 급등할 수 있어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자의 부담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국내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내년 경기 성장세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는데 하강 국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뉴스스

소비자원 “시중 절임배추서 대장균 기준 초과”

100% 신안천일염이라 속이고 중국산 혼합 사용도

핵가족화로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절임배추를 사용해 감정을 하려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절임배추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감정청을 맞아 온라인 쇼핑물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대관령원예농협 채소사업소에서 지난 10월 16일 제조한 절임배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제조 일자가 동일한 5개 중 4개 시료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이중 3개 시료는 최대허용한계치(10CFU/g)를 초과했다.

별군·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임식품의 경우, 제조번호·제조연

월일 또는 유통기한가 동일한 5개 시료 중 1개라도 대장균이 10CFU/g(최대허용한계치)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대장균이 검출된 시료가 2개 이상이면 부적합 제품에 해당된다.

또 1개 업체는 소금의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합샘 농협회사법인)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다.

뉴스스

오늘 Lotto 제 835회차 당첨결과 (2018년 12월 1일 추첨)

9 10 13 28 38 45 + 35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5	1,233,681,126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8	53,175,911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306	1,337,469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6,763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767,089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간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역망일)

뉴스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